

동산인들과 나누는 가상^{假想} 이야기

1. 얼마 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법 역할을 다 했고, 후보들이 나름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 선거전은 예년보다 뜨거웠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2학년 훈이와 그 친구들을 만나 출구조사(?) 겸 여론수렴을 해 보았다. 누가 당선될 것 같은가 물으니 대체로들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였다.

“학생회장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 “두발이요.” / “두발을 어떻게?”

“앞머리는 눈썹까지 내려오구요, 옆머리가 귀에 닿아도 되게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

“멋있게 보이잖아요” (순간, 내가 피-식)

“다음은” / “급식이요, 너무 맛 없어요,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구요.”

“또?” / “0교시를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또, 그 다음은?” / “뺑 자판기 설치요, 아예 매점 설치하면 더욱 좋구요, 교문 밖에 나가서 사 먹기가 불편해요” 대화는 이쯤에서 접고, '설득'과 '해명'으로 마무리했다.

2. 점심식사를 마치고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서 쉬고 계시는 김선생님을 만났다.

“김 선생님, 요즘 우리 애들 수업시간에 어때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 깨우다보면 수업의 맥이 끊기고, 또 일어나서 딴 짓하니까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아마, 평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방치(?)해 둔 것이 무안스러워 그런지 장황하게 말씀하신다.

“생활태도는 어떻게요?”

“아무리 지도해도 교복 제대로 입지 않는 애들이 많구요, 머리 기른 애들 많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려요. 계단에다 음료수 캔 그냥 두구요, 빙과류 껍질도 아무데나 버려요.”

자칫 학생 성토장이 될 듯한 기세여서 화제를 돌려보았다.

“참, 선생님반 길동이 요즘 잘 나와요?”

“아노, 어제도 1교시 시작 후에 왔어요.” / “부모님도 아세요?”

“그럼요, 몇 번이나 전화드렸는데요. 밤새 뭘 하는지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에 오면 종일 잠만 자요.”

3. 저녁 자율학습시간에

어느 학부모님에게서 온 전화 내용이다.

“교감선생님, 저 2학년 훈이 엄마인데요, 우리 애 좀 데려다 야단 좀 쳐 주세요.” / “왜요? 훈이 요즘 학교생활 잘 하는데요.”

“아노,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중간고사도 망쳤는데 큰일이예요. 창피해서 학교에도 못 가겠어요.”

“공부가 억지로 되나요? 조금씩 공부할 마음이 우러나게 잘 타이르시지요.”



최기형 교감선생님

“제 말은 도무지 안 듣는다니깐요. 이제는 머리 컸다고 대들기까지 해요.”

4. 다음 날 저녁 시간

이다. 식당에서 나오다 교문밖에서 떡볶이를 사서 먹으며 들어오는 훈이를 만났다.

“어, 훈이구나, 아까 식당에서 저녁 먹더니, 또 떡볶이 먹니? 벌써 배고파?”

“아노, 그냥 먹어요.”

“참, 훈이 진로는 정했니?” / “...아직요”

“훈이 요새 공부 잘 하고 있지?” / “...”

“밤에 게임은 이제 안 하지?”

“아노, 조금 해요.”

“훈아, 금방 3학년이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해야지. 기말고사에서는 국영수 한 등급씩만 올리자. 알았지?” / “네...”

5. 퇴근길에

무 다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다.

훈이야, 나도 고2때 공부 참 안했다. 아니, 공부하기가 참 싫었다. 억지로 자율학습을 했는데, 글씨는 눈에 안 들어오고, 온갖 허접스런 잡념으로 공책 가득 낙서만 하다 하숙집에 돌아왔다. 진로도 물론 정하지 못했었고..., 그러다 고3이 되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지어야 하는데... 아이구, 땀벌에 보리베고, 거머리 물리며 모내기 하구,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야하구... 이것 참 큰 일인데...’

그래, 훈이야, 선생님은 시골 가서 힘들게 농사짓는 게 싫어서 대학 가려고 공부했다. 농사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하시는 농사일이 참 힘든 일로 생각되더라. 노력에 비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고3이 되어서나마 ‘학습동기 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목 마른 소’가 된 것이지. 그 때부터 시간이 아깝더라. 어떨 때는 정말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웠지.

훈이야, 공부에 관련된 옛말에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한다. 어쩌면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학습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을 합리화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소를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이 마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목이 마르면 스스로 물가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내가 고3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훈이 너도 공부에 대한 ‘목 마름’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발문제’ ‘급식문제’ ‘0교시 문제’ ‘매점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하자.

참, 김선생님, 그래도 우리 애들 참 착해요, 그리고 이번 ‘인천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교 대박 났구요, 3학년 6월평가에서 수리 만점이 여섯 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훈이 어머니, 훈이 믿고 기다리세요. 잘 할 거예요. ‘효행수기’ 읽어보니까 철 들었던데요. 앞으로는 게임도 적게 하고 기말고사 성적도 오를 것 같아요.